

# 독자광장

독자 여러분의 엽서를 기다립니다.  
엽서가 채택된 독자에게는 소정의  
상품을 드립니다. 엽서를 보내실 때에는  
이름·주소·전화번호를 적어 주시고 개인  
정보 제공에 동의해 주십시오.

- 전자우편 : editor@kca.go.kr
- 문의전화 : (043)880-5743

## 독자엽서 보내실 곳

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 
한국소비자원 소비자정보팀  
'독자광장' 담당자 앞



## 축하드립니다.

독자엽서로 좋은 의견을 보내  
주신 강영숙, 이춘임, 이현희  
독자님께는 문화상품권(2만 원)  
을 보내드립니다.

## 온라인에서 만나는「소비자시대」

「소비자시대」를  
“ 온라인에서 손쉽게 열람하세요! ”

— <http://www.kca.go.kr> —



## 독자엽서 | 2018년 9월호를 읽고

얼마 전부터 임플란트 뿌리를 심고 치료를 받는 중입니다. 치료를 받으면서 힘들었는데 이번 호 현명한 소비 코너의 임플란트 정보를 보면서 시술 치아를 잘 관리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. 시술 1년 내에 임플란트가 빠진 경우 별도 비용 부담 없이 재시술이 가능하다는 정보는 정말 유익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

■ 강영숙(인천시)

역시 한 달여를 기다린 만큼 모든 기사들이 한결같이 अच्छ고 유익했습니다. 그중에서도 '입으로 부는 리코너, 알고 보니 세균으로 부는 연주?' 기사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. 그동안 아이들이 부는 리코너를 볼 때마다 위생 상태가 어떨까 걱정스럽기만 했는데 이번 기사를 통해 더욱 근심이 가득해집니다. 어린 학생들의 필수 교구로 자주 사용하며 신체와 직접 접촉하는 만큼 철저한 가이드라인 등이 수립되었으면 합니다.

■ 이춘임(경기도)

가족들이 걷기와 등산을 즐기는 편이라 기능성 소재의 옷들을 많이 사는 편입니다. 그래서 이번 호 상품테스트 코너의 결과가 조금은 충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. 사실 눈으로는 쉽게 확인하기 어려운 기능을 가격만 믿고 샀던 것 같아 많이 반성하게 됐습니다. 앞으로 조금 더 현명한 소비자의 자세를 갖추도록 관심을 기울여겠습니다.

■ 이현희(인천시)